서천군 기산의 華山서원 향사

습재 權擘선생이하 6현

▲ 화산서원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 관비로 신축한 화산서원의 제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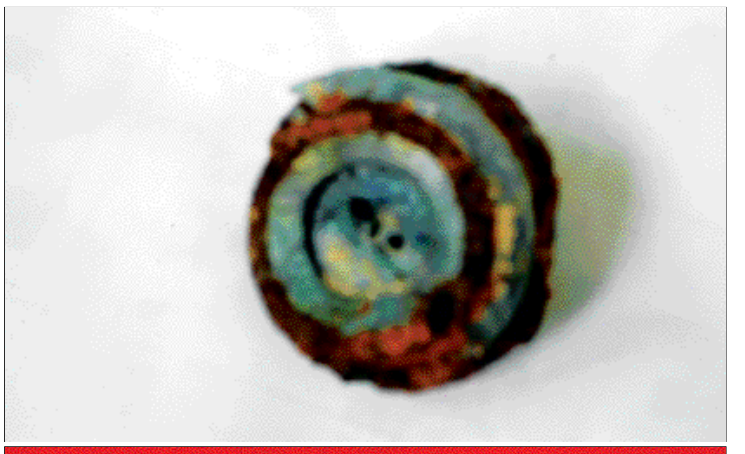
음력 3월 5일 정일인 3월 31일 11시에 충남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에 소재한 화산서원華山書院의 향사가 거행되었다. 화산사는 안동권씨 추밀공파 양촌 문충공계 시조후 21세로 선조조에 좌해문장左海文章의 칭호를 받아 중국에까지 문명을 떨친 습재習齋 권벽權擘 선생을 주벽主擘으로 하여 풍옥헌風玉軒 조수륜趙守倫、석주石洲 권필權 、과묵당果默堂 홍미洪采、지족당知足堂 권양權讓、수초당遂初堂 권변權 、제월재霽月齋 권성權省 6현을 열배列配한 서원이다.

이 서원에는 지난해 관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삼문 안의 양옆과 배후에 원장을 두르고 퇴각하던 제기고祭器庫를 신축하였다. 화산서원은 강당과 동서재東西齋 및 외삼문外三門을 미비한 상태이고 영당影堂 또한 중수 내지 신축을 해야 하는 등으로 앞으로 더해야 될 일이 숙원으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현재 이돈직李敦稙 원장 이하 한산지역 유림에서 주관하고 있는 화산사의 향사는 춘계의 세일향歲一享으로서 음력 3월 5일의 정일定日에 봉행하며 초헌관은 고을 성주城主인 서천군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행사는 당일 입재 당일 행사이다. 이날 행례의 집사 분정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나소열羅紹烈(서천군수)
아헌관 : 나주운羅胄運(전 서원장)
종헌관 : 차돈희車敦熙
집례 : 이항규李伉珪
대축 : 김원중金元中
진설 : 박창숙朴昌淑、권태환權泰煥
사준 : 김형진金炯振、박문배朴文培
봉향 : 이정복李廷福
봉로 : 권오룡權五龍
봉작 : 강원순姜元淳
전작 : 이정복李政馥
알자 : 박우주朴遇周
찬자 : 허철행許哲行
찬인 : 서원문徐源文
직일 : 박현구朴顯九
도기 : 홍이선洪二善、조태연趙泰衍

<사진 · 글 權奇允>



▲ 국헌공菊軒公 칙 , 추밀공파 양촌계 습재공習齋公 휘 벽擘의 손자로 시조후 23세이며 강로전姜虜傳 등의 저자인 공의 경기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토이곡에 계좌癸坐로 있는 묘소가 개봉축되었다. 미군의 사격장 경내에 있어 출입이 어려우며 6·25 전란 후 의물이 훼손되어 있던 것을 수호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 4월 4일에 상석과 장대석 및 산신위석 등을 보설하여 사초를 가하였다. 이때에 구상석의 파편 속에서 두번째 사진과 같은 포탄의 뇌관부분이 나왔는데 세번째 사진은 개토시에 상하연분의 하분에서 출토된 지석誌石이다. 주발로 된 지석은 그 안쪽에 글씨를 써 넣었는데 중심에 ‘ 방회팔촌傍灰八寸 이라 한 바 이는 격회隔灰 곁 8치 떨어진 자리에 이것을 묻었다는 뜻인 것 같다. 다음 판독되는 것은 ‘ 계미십이월초사일묘시하관癸未十二月初四日卯時下棺 이라 쓴 하부 둘레의 12자이다. 이는 인조 2년, 1643년 계미 12월 4일 묘시에 하관했다는 말이므로, 하분이 국헌공의 배위 숙부인 경주이씨의 것으로 볼 것인데 족보상에 그 졸기가 효종 5년, 1654년 갑오 10월 20일로 되어 있는 것과 11년 차가 나고 있다.

6면에서 계속

아니라 연루된 공범의 혐의로 민주국민당 소속 국회의원 서상일과 백남훈白南薰이 체포되고 노기용盧企容、방주혁方周赫、김성규金性圭、최양옥崔養玉、최태현崔泰鉉、김익진金翼鎭、정용환鄭容煥、유희공柳希恭 등 12인이 속속 검거되었다.

여기에서 인천의 최양옥은 김시현보다 10세가 연하인 1893년 강원도 횡성 출신으로 서울 중동중학생 시절 3、1운동에 가담하고 상해임정에 군자금을 조달해 보내다가 1920년 일경에 체포돼 7년을 복역했다. 1926년 출옥후 중국에 망명해 대한독립군 공명단共鳴團을 만들어 그 단장이 되고 비행사 안창남安昌男、김정련金正連 등과 함께 귀국해 비행사 양성을 위한 비행학교 설립자금을 마련코자 1929년 국내로 들어와 서울 망우리 근처에서 우편열차를 습격해 돈을 탈취해 강원도 방향으로 도주하며 추격 일경과 항전하다 붙잡혀 다시 10년을 복역했다. 해방후에는 서울형무소의 서무과장을 거쳐 이때 인천의 소년형무소장을 지내고 있었다. 이러한 최양옥은 김시현이 믿고 찾아와 털어놓고 역설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할 거사를 제의하자 이를 말리며 협력을 거절하였다. 최양옥은 거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전시하의 상황에서 독재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저격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김시현이 돌아간 뒤에 지인을 통해 내무부 치안국에 이를 제보하였다.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케 하려는 뜻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최양옥은 무죄로 석방되고 인천형무소장까지 지낸 뒤 1962년에는 사후로서 건국훈장 독립장도 추서받게 되었다. 안동의 한약상 주인 김성규는 같은 한약업 계통으로서 유시태와의 친분으로 체포되고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장으로 재직중인 김익진은 같은 안동김씨로서 김시현과 친족관계로 연좌되어 구속되었으며 정용환은 권총을 제공한 죄로 잡혀 들어갔다. 또한 노기용은 1897년 합천 출신으로 3、1운동 당시 대구에서 항일운동을 위해 송두환宋斗煥 등이 조직한 군사주비단軍事籌備團에 가담해 상해 임정에의 군자금 조달에 힘쓰며 권총을 들고 출몰하다 1923년에 일경에 체포돼 모진 고문의 상처로 재판이 여러번 연기된 끝에 7년을 복역하고 나와 주로 대구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 대개 이들 연루자의 성분이 의열독립운동가이고 그 가운데 좌익 공산자는 들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과 판사의 재판 심리를 거친 뒤의 판결은 최양옥、방주혁、김익진、노기용 4인은 무죄, 최태현、정용환、유희공은 벌금형에 처해지고, 백남훈이 징역 3년, 서상일은 6년, 김성규는 7년을 선고받았다. 김시현과 유시태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됨에 따라 곧 집행이 되게 되었다. 아무리 국가원수를 저격한 사람이라 해도 미수에 그친 것인데 이에 대한 극형은 가혹한 것이었으나 계엄령하이던 전시의 상황으로 이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사형집행의 최종 재가를 받는 서류가 대통령에게 올라갔을 때 이승만은 자기를 저격하려 한 두 사형수가 어떤 자들인가를 물었다. 둘이 다 독립운동자이고 일제하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특히 김시현은 수없이 투옥되어 몇십년을 감옥살이하면서도 죽잖고 살아나온 자라고 보고했다. 보고자는 김시현이 그처럼 끈질긴 악질임을 강조한 것인데 이승만은 잠시 그 보고자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일본놈도 죽이지 못해 살아나온 사람을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죽인대서 되겠는가. ”

일제도 죽이지 못한 독립운동자를 자기가 죽여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하여 이승만은 두 사람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